

“곤충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키우던 곤충이 죽어서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더러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벌레를 키워?’ 반문하며 절레절레 चे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러나 ‘벌레’ 에 대해 조금만 알게 된다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아니 아예 키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곤충한테 자신을 키워 달라고 매달릴지 모른다. 지구 생물 가운데 곤충은 무려 80퍼센트에 달하기 때문이다.

자연생태체험 학습가이드북 《떠나자, 신기한 곤충 세계로》를 낸 곤충학자 김태우(34·www.sungshin.ac.kr/~pulumuchi) 박사는 “부지런히 살충제만 뿌려댈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현미경을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 김 박사는 곤충을 키워왔고, 키우던 곤충이 죽을 때 슬퍼하면서 땅에 묻어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열 권도 넘는 관찰일기를 써오다 결국 곤충학자가 된 사람이다.

“곤충연구는 무엇보다 재미있어요. 아무리 많은 종류를 알고 있어도 탐방을 나갈 때마다 새로운 종류를 발견하니까요. 끊임없이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할까요.”

이런 소리를 하다보면 별난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다. 벌레는 징그럽고 더러운 것이 아닌가? 하지만 김 박사는 이런 관점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프로그램화된’ 편견, 그리고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더러움의 대명사인 파리는 끊임없이 손을 비비며 먼지를 터는 강박증 청결주의자이고 바퀴벌레 역시 입으로 몸을 닦아내며 몸단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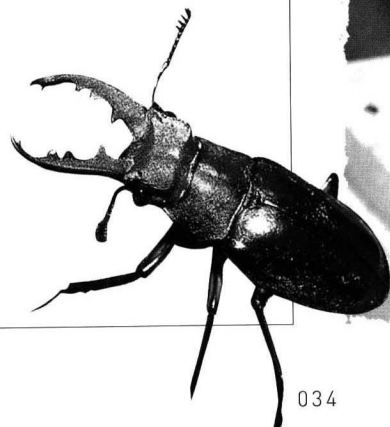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곤충과 인간은 일종의 ‘경쟁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라는 영역에서 둘은 끊임없이 공생하고 또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곤충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른바 ‘해충’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나왔

‘죽이기 전에 관찰하라’, 곤충에 대한 아주 오래된 편견과 무지

곤충학자 김태우 박사



“자기 뒷산에 뭐가 사는지... 동네 학교 운동장에 뭐가 사는지... 그런 것부터 보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엔 여기서 딱정벌레를 봤는데 올해는 왜 안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자연히 내가 사는 곳을 아끼게 되죠. 이런 시간이 오래 쌓이다 보면 삶이 깃들고 추억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 역시 그 곳의 일부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싹터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멸종해 버리는 것도 있죠. 사실 '곤충'이라는 말 한마디로 통칭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그러니 '해충' 이니 '익충' 이니 하는 분류도 좀더 복잡한 고찰을 거쳐야 한다. 잘 짜여진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떤 개체 하나가 급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인데, 이 '환경'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인간이다.

"어떤 해충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환경에 놀람도록 잘 적응해 오히려 인간에 의해 종이 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리, 모기, 비퀴벌레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도시' 라는 환경에 잘 어울린 예죠. 원래 비퀴벌레는 열대지방 출신으로 추위를 못 견디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전혀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방이 잘되어 기후변화가 없고, 비를 피할 수 있고, 음식찌꺼기가 항상 있는 곳이 도시다보니 번성할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는 비퀴벌레를 없애려면 겨울철에 난방을 끄고 집을 며칠 비워두면 충분하다고 조언한다. 살충제를 뿌리기에 앞서 그들의 생태를 알고 적절히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죽이기 전에 관찰해라, 이걸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따지고 보면 파리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기 유전자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생명체잖아요. 파리가 너무 많이 생겼다, 이걸 결국 인간이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죠. 인간이 간섭해서 균형이 깨진 겁니다. 물론 어떤 곤충은 인간을 호시탐탐 노리기도 합니다. 그건 '공부' 해서 컨트롤 해야죠. 제일 바람직한 모델은 환경 자체가 자연과 순환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많은 해충들도 사라지게 되죠."

요즘에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등 애완으로 곤충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대해 김태우 박사는 곤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서서히 성장하는 인간과 달리 곤충은 몇 차례의 격렬한 변화를 거쳐 전혀 다른 존재

가 된다. 큐티클이라는 딱딱한 층으로 덮여 있어 '사이즈' 가 정해져 있으며, '변태' 의 과정을 거쳐 전혀 다른 외형으로 변한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일종의 '문화충격' 일 만큼 경이롭고 신비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자판기에 돈만 넣으면 벌레가 나올 정도로 애완 곤충이 상품화되어 있다. 하지만 야생에 있는 것들을 마구 잡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릴 때 자연과 가깝게 지내면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연학교에 온 어린이들을 보면 스스로 놀이를 개발하고 또래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도와줄 줄도 알고 벌레를 장난감 삼아 놀 줄도 알구요. 자연을 관찰하면서 생애적으로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의 사소한 작은 자연물들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생태적 마인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갯벌 답사니 늪 탐방이니 하는 거창한 여행을 추천하지 않는다.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지방에 우르르 내려가 그곳이 망가지든 말든 신기한 걸 뒤지는 식으로는 결코 자연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이다.

"지그 뒤편에 뭐가 사는지, 동네 학교 운동장에 뭐가 사는지, 그런 것부터 보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여기서 딱정벌레를 봤는데 올해는 왜 안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자연히 내가 사는 곳을 아끼게 되죠. 이런 시간이 오래 쌓이다 보면 삶이 깃들고 추억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 역시 그 곳의 일 부리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싹터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곤충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오는 길, 옷에 작은 벌레가 붙었다. 한 시간 넘게 학습받고 왔지만 역시나 움츠러들긴 마찬가지. 하지만 '아이 징그러' 대신, '아이 신기해' 라고 말해 볼까 한다. '벌레 씹는 표정' 대신 내가 내민 최초의 촉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작지만 큰 변화는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

취재 김성중(객원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